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6월 30일 (제1009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원망(怨望)

원망의 근원은 '남 탓'에 있다. 일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나 상황이 나쁠 때면 대개의 사람들은 '~ 때문에'라며 남 탓을 한다. 그것이 원망이다. 이는 일종의 책임전가(責任轉嫁), 문제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그러나 원망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는가? 원망하면 좀 마음이 편한가? 병들면 회사가 일을 많이 시켜 과로해서 그렇다고 한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성도 탓하고, 더는 총회장인 나를 탓한다. 지각하면 늦게 온 버스를 탓한다. 아니, 병이 난 것은 내가 내 몸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 없는 내 탓이고, 지각한 것은 게으른 내 탓 아닌가. 그런데 왜 남을 원망하는가.

원망 전에 나를 돌아봐야 한다. 나의 행위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임을 인정할 때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전10:10).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과정에서 원망이 참 많았다.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을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면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잘 알지 않은가. 여차피 벌어진 일이라면, 원망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면 이때 남다름을 보여주자. 읊 처럼 감사하는 거다. 읊은 하루아침에 재산도, 자식도, 건강도 다 잃었으나 남 탓 안 했고, 하나님 원망도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8)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말씀이다. 그러니 남 탓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읊과 같이 축복을 주시리라.

애당초 기상청에 따르면 집회 당일인 21일과 22일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되었다. 그러나 인천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21일 작정기도가 땅에 떨어지랴! 예상을 깨고 하늘은 미세먼지조차 없는 맑은 날이 계속되었다. 이럴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것은 예수중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대하심이다. 인천전도집회가 진행된 21일부터 23일까지 인천예수중심교회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대성전은 물론이고 소성전과 부속실 네 군데도 입주의 여지없는 만원사태였고, 성전로비에까지 스크린을 설치해야 할 지경이었다. 대형버스와 차량으로 주변도로가 마비될 정도였

습니다. 절까지 지어놓은 집이었으니 얼마나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그러나 75세가 되었을 때 예수를 만나고 그동안의 죄를 다 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동안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언제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행 티켓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반성은 더러운 물을 가만 놔두어서 더러운 것을 가라앉히는 것이라면, 회개란 더러운 물을 아예 쏟아내고 깨끗한 물을 다시 담는 것입니다. 간음한 일이나 도적질 한 일,

가, 권사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없습니다. 목포에서 집회할 때 한 여인이 정신병에 걸려 단에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그녀가 대학 재학 당시 남의 하이힐을 훔쳤습니다. 그게 울무가 되어 정신병까지 온 것입니다. 그가 그 사실을 눈물로 회개했을 때 정신이 온전해졌음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 세상을 편히 하직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그들을 음부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은 천사에 받들려 낙원으로 가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눈을 감습니다.



인천전도집회(2019년 6월 21일~23일, 인천예수중심교회)

으니 집회의 대성공을 가늠하리라. 강사이신 총회장 목사님은 집회 참석자의 대다수가 초신자라는 것을 감안해서 첫째 날은 '회개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주제로 말씀하셨고, 둘째 날은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셋째 날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두려움이 최대의 걸림돌임을 설교하셨다. 차근차근 믿음의 단계별로 설교하신 것이다. "회개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동안 우상을 섬긴 일이며, 자식들 잘되라고 정안수를 떠놓고 조상에게 빌던 일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런 분이셨

사기 친 일,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 등을 모두 회개해야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원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매일 짓는 자범죄는 회개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촉구하시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주변국을 들어 전쟁을 일으키고, 끌려가 노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나라가, 기업아, 목사가, 장로

당신과 하나님만 아는 죄를 회개하세요. 천국은 두루마기를 빨아야 들어가는 곳이니깐요(계22:14). 여러분이 회개하면 예수님이 용서하실 것이고, 회개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흘 동안 목사님은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셨고, 예배 후 일일이 안수하시며 귀신을 쫓으셨다. 이 집회를 통해 예수중심교회의 모교회인 인천예수중심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다음 주에 계속)

신묘수 전도사

jesus7857@gmail.com



1층 로비에도 성도들로 가득차다



인천예수중심교회 전경



예배 후 성도들을 안수하시는 목사님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삿7:1~9)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

성경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36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상하신 하나님이 윤달까지 계산하셔서 ‘매일 매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보면 우리가 매일 매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산다는 말이 됩니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안전에 대한 불안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 빠듯한 생활 등, 현재에 대한 두려움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면 그것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잠언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잠29:25)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인즉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고, 돈을 두려워하면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커스단의 코끼리나 수족관에 사는 상어를 보세요. 그것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조련사가 두려움을 각인시키자 쇼나 하면서 사람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까? 두려움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순간에 이성이 마비되고, 들리던 것이 안 들리고, 보이던 길도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고로 큰일을 이룰 때 겁이 많은 사람, 두려워 떠는 자들과 함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합지졸(烏合之卒)이 되어 힘이 되기는커녕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인류 최대의 적이다

사사기 7장을 보겠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곡물과 각종 과실을 침탈해갔고, 양과 소와 나귀 등 소유물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에 의해 자신들의 산업을 모조리 잃어버릴 지경이 되었고, 급기야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자 산으로 도망하여 굴을 파거나 산성을 쌓아 생명을 보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것을 계속 보고 계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드디어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셨으니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대를 조직하게 하십니다. 그때 모인 사람이 3만 2천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중 300명만을 차출하여 정예부대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첫째, 먼저 두려워 떠는 자들은 제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만 2천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습니다(삿7:1~8). 하나님은 그들도 많다 하시며 감군명령을 내리십니다. 물가에서 물을 마실 때 무

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은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상황도 시국도 모르고 타성에 젖은 자들이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는 ‘시세를 아는 자’라야 통솔자가 되고, 승리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처럼 서서 물을 손으로 훔아먹는 3백 명만을 차출, 그들을 전쟁에 투입시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실 기드온도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사사로 세웠을 때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니

다”(삿6:13~15)라고 손사래를 치며 두려워했습니다. 오죽하면 양털로 두 번이나 하나님께 징표를 구했을까요? 또 과연 300명으로 막강한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미디안 병졸들이 하는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심으로 두려움을 떨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하면 두려워 떨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사내자식이 배짱이 있어야지. 나가 싸워봐.’ 하시면서 무조건 담대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41:10). 가장 약한 기드온을

택해 대업을 이루게 하심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전쟁에 이겼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데가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갈 때 특히 여성들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성 귀가를 돕는 안심서비스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 골목길을 갈 때 휴대폰으로 요청하면 경찰이 와서 집까지 동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 뒤에는 항상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다니엘이 과감히 사자굴에 들어갔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평소보다 칠 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담대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약속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니엘은 사자를 베게 삼고 누워 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사43:2).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골리앗을 향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삼상17:45). 사도 바울이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던 느헤미야가 도비야와 산발랏이 훼방하고 협박에도 담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느4:14).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히13:6)라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삶의 암적 존재다

제가 세상의 꾀박과 모함을 어떻게 이겨냈겠습니까? 바로 “너희는 나를 들고 사람의 훼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 같이 쏘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 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사51:7~8)는 말씀을 부여잡았기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전술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실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떨쳐내십시오. 또한 죄에 대해서도 두려움에 쌓이면 안 됩니다. 마귀는 ‘너는 간음했자나.’, ‘너 도적질했자나.’, ‘너 마약한 거 내가 봤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죄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사해주셨다. 어쩔래?” 이래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에 울며 회개하며 담대히 죄를 고백했듯이 하면 됩니다. 여섯 남자를 데리고 살던 여인, 그녀는 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아무도 없는 한밤에 물을 길어가곤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 담대하게 죄를 고백하더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또 담대하게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죄와 꾀 뿌리기가 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죄에 항복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상사 때문에 돼지머리에 절하고, 친구가 떨어질까 봐 휴업업소에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손이 실족하면 손을 잘라버리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는 그런 담대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혼자 있을 때 두렵지요?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늘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14:18). 당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는다면 그 성령이 당신을 평생 지키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세요.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즐거운 일을 하라

얼마 전 끝난 20세 이하 월드컵(U-20) 대회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축구대표팀이 준우승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강인이라는 어린 선수가 18세의 나이에 최우수 선수에게 주는 골든볼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 임하는 선수들이나 코치진의 모습들이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실수했을 때에도 웃으면서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았습니다. 36년 전 선배들이 멕시코 대회에서 4강에 올랐을 때와는 너무나도 판이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받은 탓인지 ‘붉은 악마’라는 별명처럼 결기에 찬 표정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감독은 경기에 지면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갈 각오를 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린 대표 팀을 맡은 정정용 감독은 시합 직전에 선수들에게 ‘실컷 즐기고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정말 경기를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결승전에서 3대 1로 역전패를 당하고 나서도 기자들이 “눈물이 나지 않았느냐?”고 묻자 “최선을 다 했는데 왜 눈물이 나요?”라며 당당하게 반문하던 이강인 선수의 인터뷰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비결은 자신의 적성에 맞고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공차기를 좋아했던 이강인 선수의 숨은 재능을 부모님들이 발견하고 열 살 때 스페인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역만리 낮은 땅에서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아이에게 법관이나 유명한 과학자가 되라며 하기도 싫은 공부만 강요했다면 부모도 힘이 들고 아이도 죽을 맛이었을 것이며 분명히 결과도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대학을 가야하고, 졸업 후에는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공무원시험이나 대기업 시험을 준비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학력이나 스펙보다도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질적인 공부와 경험을 쌓는 것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꾸준히 오래하다 보면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고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세대가 어느 정도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래도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지 시집 장가를 보내죠.”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전문가가 되어서 경제적 자립을 한 사람에게 결국 더 많은 선택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 따라 부화뇌동하지 말고 자신이 평생 즐길 수 있는 일거리를 찾는 것이 행복한 삶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 성경에세이 ::

무리하지 말라

여보게!

지교회와 어느 목사가 성전 건축 문제로 상담을 왔다네. 그의 이야기를 한참 듣자니 지금 교회를 짓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네. 그래서 “교회를 지으면 좋겠지만 교회 짓다가 너 쓰러지고, 성도들도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라고 그 목사에게 말해줬다네.

연젠가 지게에 계속 집을 신다가 내가 넘어지는 꿈을 꾸었네. 꿈을 꾼 후에 ‘아차!’ 했네. 많은 일들이 내 힘에 부쳤나 보네. 그래서 그 후로 나는 무거운 짐을 하나둘씩 내려놓으려고 노력한다네. 성경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막 8:36)라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힘에 겨운 것은 내려놔야 한다네. 내가 살아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 아닌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기기는 하지만, 그것도 내가 건강해야 이를 수 있는 것이지.

장인에게는 연장이 최고의 자산이라네. 연장이 최고의 무기인 셈이지. 연장 중 가장 귀한 연장은 자신의 몸이라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장인이라고 해도 진가를 발휘할 수 없다는 거니까.

여보게!

큰 웃을 입으면 웃에 걸려 넘어지고, 큰 신발을 신고는 달릴 수가 없지. 누구나 자기 분량이 있다네. 그것을 초과하는 것을 과로, 과식, 과음, 과속, 과찬, 과열이라고 하고, 그것은 반드시 고장 나고 사고 나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네.

무리는 결국 욕심과 동색이야. 욕심 때문에 초과하는 거니까. 그러나 욕심의 결과는 결국 사망 아니던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1:15).

그렇다면 과(過)하다는 것을 아는 방법이 뭘까? 먼저는 몸이 안다네. 과식을 하면 배부른 걸 느끼고, 과음을 해도 휘청거리지. 과욕을 부리면 마음이 불편하고, 과로를 해도 피곤을 느끼지. 그때 멈춰야 하네.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처럼 거기서 더 달리면 대형사고가 난다네. 엔진이 과열되면 불나고 고장 나서 처분해야 하지 않는가. 제발 욕심 부리다 조기 처분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네. 그런 제자들 때문에 내 마음이 많이 아프네. 몸 관리 잘하게나.

朋友

12번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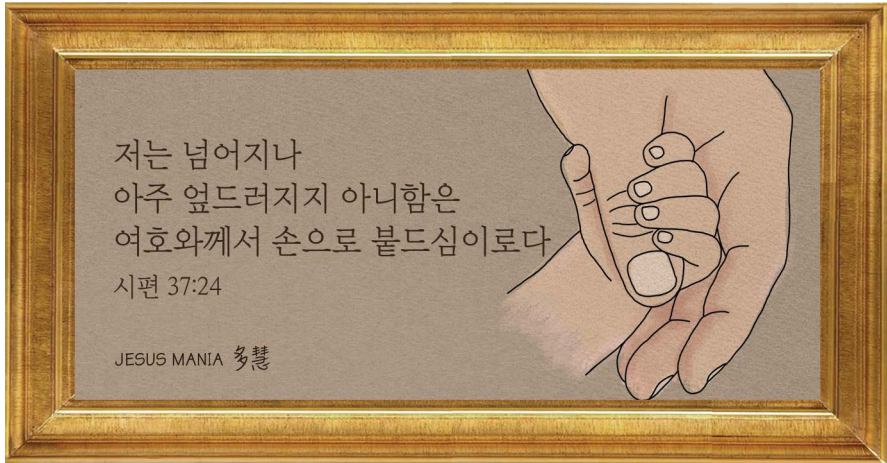
올해 3월 초 1차 의료기관에서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나도 놀랄 만큼 평안했다. 내 의지가 아님이 명확하다. 나는 민감하고 섬세한 성격이라 답대하지 못하다. 그러나 암 진단부터 두 번의 대수술과 항암치료 5회차인 지금까지 평강과 감사가 떠나지 않은 것은 주님의 은총이다.

암 진단 전부터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계시하신 것을 헤아려보니 이번 암에 관련된 것이 12번이다. 물론 내 수한을 알게 하신 것까지 포함하면 참으로 많은 응답을 주시고 장차의 일을 알게 하셨다. 기억에 남는 것은 우두머리 천사가 나의 큰 암 덩어리를 떼어 치우고 하나님의 빛줄기 속에서 작은 막대기를 꺼내어 그 빛으로 미세한 암들을 죽이는 광경이다. 이어서 수많은 수하 천사들이 같은 막대기로 빛을 쏘여 내 온몸의 미세 암세포를 죽였다.

‘전쟁은 이겨놓고 하는 것이다’, ‘기도는 응답받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싸움에 평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참 좋은 의사와 병원이 예비되고 심지어 알지도 못하던 장로님이신 한의원 원장님으로부터 거의 무상으로 내 온갖 고질병을 치료받고 있으니 그저 놀랍고 감사하다. 건강을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넘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는 완쾌 되었다.’라고. 그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당신의 제자 목사들과 전도사들이 병중에 소천하고 고통받는 모습에 괴로워하시며 외치신 말씀. “죽지마라 죽지마!”.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식을 둔 심정이 오죽하시랴. 목사님의 간절한 바람으로 제가 소생하였습니다. 강건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이광주 전도사



:: 소망의 언덕 ::

할 수 있다!

중고등부 예배에 처음 온 한 학생이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모두 세뇌된 거 같아요.” 재미있다는 듯이 말하면서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했던 그 아이가 내뱉은 세뇌라는 단어가 기억에 남아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세뇌-사람이 본디 가지고 있던 의식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게 하거나, 특정한 사상·주의를 따르도록 뇌리에 주입하는 일.’ 이것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사실 세뇌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수-손을 씻음’, ‘세면-얼굴을 씻음’, ‘세족-발을 씻음’과 같이 세뇌 역시 ‘뇌를 씻음’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뇌를 영어단어로 보면 ‘brain-washing’, 문자 그대로 뇌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보니 세뇌라는 단어가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생각으로 가득 찬 뇌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세뇌된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아이들을 목욕시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올

해로 초등학교생이 된 첫째 아이는 혼자서 목욕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세 살이 된 딸아이는 서서 머리를 감는 것을 무척 힘들어합니다. 그날도 머리를 감는데 눈이 뻘뻘하며 떼를 부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욕소에서 놀며 기분이 좋아질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부엌에서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고 욕실에 돌아온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 아이가 욕실에 들어와 동생을 교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 수… 있다.”, “자… 오빠가 말하는 대로 따라 해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 주먹까지 불끈 쥐고 시범을 보이는 오빠가 재미있다는 듯이 구호까지 따라한 딸아이는 그날 웃으면서 머리를 감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면서 정말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 우리 교회에서 자주 외치는 구호입니다.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뇌 속 깊이, ‘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뇌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현승 전도사

부드러움의 강함

‘해와 구름의 내기’는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해와 구름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누가 먼저 벗기는지 시합을 한다. 구름이 강한 바람으로 옷을 벗기려고 하지만 바람이 강할수록 나그네는 옷깃을 더욱 단단히 여미었다. 그리고 결국 햇별의 따뜻함에 나그네는 옷을 벗어버린다. 이 이야기는 어린 시절의 나보다 어른인 지금 더 필요한 이야기이다. 과중한 업무와 바쁜 일상 속에서 나날이 강박해진 나는 꽤 오래 전부터 난폭한 성격으로 변하고 있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직면하면 쉽게 폭발하는 ‘콜라’ 같은 사람이 되었다. 기도하고 변민하며 나를 다스려봤지만 세상의 고단함으로 굳어진 나쁜 성격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그랬던 내가 요즘은 인내와 오래 참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절제와 온유의 기쁨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내 변화의 시작에는 남편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싶다.

사실 한번 화가 나면 쉽게 가라앉지 않았던 내가 제일 쉽고 만만하게 화풀이를 했던 대상은 부끄럽지만 남편이었다. 힘이 들면 힘이 들어서, 속상하면 속이 상해서 정말 온갖 이유를 대며 남편에게 화를 내고 불평불만을 토로하고는 했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따뜻한 햇별이 되어 끊임없이 나를 받아주었다. 폭풍같이 몰아치는 파도가 되면 모래가 되어 받아주었고,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릴 듯 불같이 화를 내면 물을 부어 나의 화를 가라앉혔다. 그리고 지친 나를 위로해주고 보듬어주었다. 남편의 오래 참음에 나는 변할 수 있었고, 지금도 변하고 있다. 며칠 전, 작은 다툼 끝에 남편의 따스함에 새삼 놀라며 그 인내력의 비밀을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 비밀은 다름 아닌 남편의 기도였다. 내가 화가 나서 펄펄 뿜 때마다, 화를 참지 못해 뛰쳐나갈 때마다, 짐승처럼 소리 지르며 울부짖을 때마다 남편은 간절한 기도로 내가 제자리로 돌아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한다. 내가 화를 내면 낼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했었다고 한다. 그런 그의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 같다. 요즘 나는 매우 평온한 상태에 있다. 가슴 깊은 곳에 있던 태풍의 눈은 사라진 지 오래고, 그 자리에는 주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의 물결이 넘쳐흐르고 있다. 나그네의 옷깃을 열게 한 것은 햇별의 따스함이었다. 차갑게 굳어있던 나의 마음이 풀려 평강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기다려준 남편의 따뜻함이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강한 것은 위대로운 마음을 끌어주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과 음성이다. 하나님은 못나고 부족한 나에게 남편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주셨다. 좋은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전훈지 성도
ppjee@hanmail.net

:: From internet ::

멋진 대결

조선 후기 효종 때의 명의(名醫)이자 우의정을 지낸 허목(許穆)과 학자이며 정치가이기도 한 송시열(宋時烈)은 아쉽게도 당파로 인해 서로가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송시열이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허목이 의술에 정통함을 알고 있던 송시열은 “비록 정적일망정 내 병은 허목이 아니면 못 고친다. 가서 약방문을 구해오도

록 해라.” 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정적인 허목에게서 약을 구한다는 건 죽음을 자청하는 꼴인데 말입니다. 송시열의 아들이 찾아오자 허목은 빙그레 웃으며 약방문을 써주었습니다. 아들이 약방문을 살펴보니 비상을 비롯한 몇 가지 극약들을 섞어 달여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허목의 못된 인간성을 원망하고 송시열에게 갖다 주며 ‘이건 분명히 독약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방문을 살펴본 송시열은 그대로 약을 달여 먹고는 완쾌했습니다. 허목은 송시열의 병은 이 약을 써야만 나

을 텐데 그가 이 약을 먹을 담력이 없을 테니 송시열은 결국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송시열은 허목이 아비하게 정적에게 처방을 구하는 자신을 죽일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송시열이 완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허목은 무릎을 치며 송시열의 대담성을 찬탄했고, 송시열은 허목의 도량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저 불독처럼 무조건 상대를 물어뜯려는 정치 풍토에서 벗어나 현대에도 이런 멋진 인물들이배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건강은 밥상 위에 있다

TV를 보면 하루 종일 시골밥상부터 세계의 진미까지 다양한 음식들이 소개되고 먹는 방송도 넘쳐난다. 보고 있으면 어느새 입 안 가득 군침이 돌고 무엇을 먹을까 궁리하게 된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즐거운 일이지만 모두 몸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의 밥상 위에 건강과 맛을 모두 담을 수 없을까? 한때 장수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한 관심사였다. 일본의 장수지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 노인들이 어류와 해산물을 즐겨 먹었고, 불가리아에서는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었다고 알려지면서 이런 식습관을 따라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물론 이런 음식들이 건강식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 한 가지 음식만으로 장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건강한 식사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균형이라는 것은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만약 영양이 결핍된다면 청소년기에는 성장발달에 문제가 생기고 성인의 경우에는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다. 반면 영양이 지나치면 비만, 대사 증후군과 함께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밥상 위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요즘은 지나치게 맵거나 기름진 음식이 유행하고, 쉽게 사서 빨리 먹는 인스턴트 음식은 우리 식탁의 균형을 깨고 있다. 결국 건강을 지키려면 이런 자극적이고 달달한 즐거움의 요소를 자제하고 가장 중요한 식생활이 건강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평범한 가정의 가장인 이장수 씨는 매일 아침 7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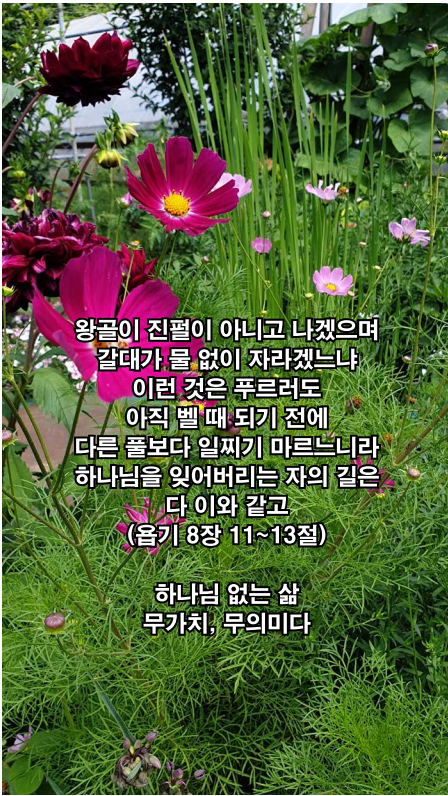
아침 식사를 한다. 단 한 번도 거른 적 없는 식습관이다. 밥보다 잠이 좋다는 고등학생 아들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등교한다.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나면 아내는 아침을 거른 채 잠을 잔다. 잠에서 깨면 아침 겸 점심의 첫 끼니를 해결한다. 이 집에서 건강한 식사를 하는 건 이장수 씨다. 아침 식사를 통해 하루를 시작해야 적절한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학생의 경우, 아침 식사를 거르면 두뇌 회전이 늦어져 학습능력도 떨어진다. 내가 무엇을 먹어지는 앞으로의 내 건강과 직접적인 영향 관계에 있다. 건강은 밥상 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먹는 것이 우리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다.

Dr. 조희경 집사
pearl9230@naver.com

성장의 딜레마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지만, 그 믿음의 성장은 기도와 응답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도 제목이 클수록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의 기쁨도 크고, 믿음의 성장 폭도 그만큼 크다. 성장의 폭이 크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그만큼의 성장통도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다. 우리의 삶만 보아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강하게 느끼던 그 순간은 보통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던 때이다. 성장의 시기가 한차례 지나가면 내적, 외적인 평안이 찾아온다. 시간이 더 지나면 다시 성장을 위한 마음속 갈망과 나태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동시에 생겨난다. 다시 그런 위기 속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피하고 싶지만, 그때의 은혜는 다시 경험하고 싶다. 간절한 기도 속에 있을 때의 고통을 알기에,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는 피하고 다른 하나는 경험하고 싶은, 가끔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 그래서 야베스도 그렇게 기도했을까? 야베스의 기도 응답은 내 것이 되길 바라는데,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의 처지는 되고 싶지 않다. 애교 부리며 하나님께 여쭙봐야지 생각한다.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에서 ‘늘’이란 단어 하나 추가해도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역대상 4:10).

박찬영 집사



왕궁이 진펄이 아니고 나뭇으로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푸르러도 아직 뻗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찌기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욥기 8장 11~13절)

하나님 없는 삶 무가치, 무의미다